



굿모닝 미스터 오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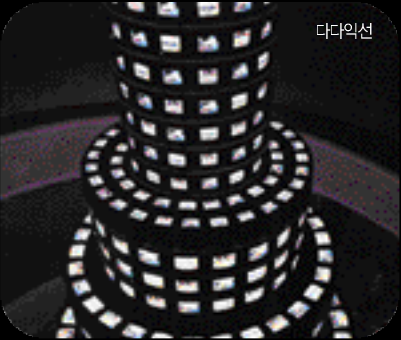
TV 부처



TV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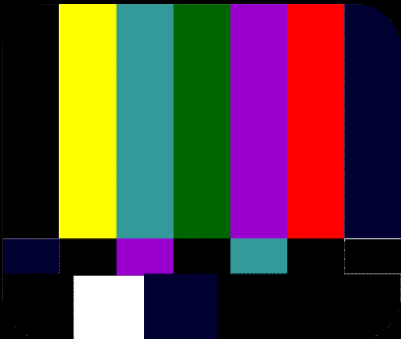
살아있는 조각을 위한 TV브라



다다익선



마그네틱 TV



TV 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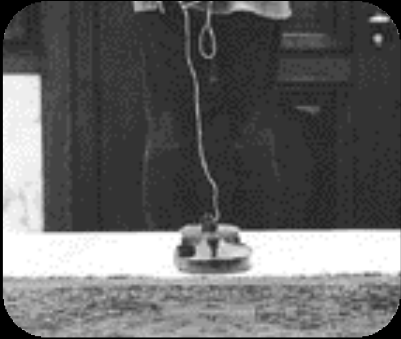
음악의 전사-전자텔레비전



참여 TV



아름의 사다리



백남준의 세계

가변성과 비결정성, 그리고 탈영토화

김 찬 동 · 전시기획자 | 본 위원회 홍보미디어팀장

존 케이지와의 숙명적 만남

한국이 낳은 현대미술의 거장 백남준이 지난 1월 29일 미국 마이애미 자택에서 향년 74세로 별세하였다.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그는 1950년대 말부터 비디오가 가지는 새로운 예술매체로서의 가능성을 예견하였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작업에 대해 ‘비디오 예술’이라는 개념에 동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그를 단순히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로서만 인식하기엔 폭넓은 그의 작업을 이해함에 무리가 따른다. 그는 다양한 영역사이의 경계지역, 즉 음악과 시각예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자공학과 고전적 의미의 인간성 같이 서로 상이한 매체와 요소들을 접목시키는 복잡한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현대예술의 지평을 무한히 넓힌 선각자였다.

그의 작업의 기초는 전위음악에서 비롯되었다. 백남준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에서 작곡과 예술사, 예술철학을 수업하였다. 1956년 일본 동경대학에서 아놀드 쉰베르그에 관한 논문을 썼고, 좀더 실험적인 음악수업을 위하여 유럽여행 중 독일에 정착하게 된다. 그의 예술작품세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1958년 전위음악가 존 케이지와의 숙명적 만남이다. 백남준은 당시 다름슈타트에서 매년 개최되는 <새로운 음악을 위한 국제적인 휴가코스>에 참가하여 동양적 사고, 특히 불교의 선(禪)에 몰두해 있는 존 케이지를 알게 되었다. 케이지는 모든 존재가 우주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사물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면서 위계질서를 배제하였다. 음악에서도 의도적으로 만든 음향과 우연히 존재하는 배경 소리를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음악’이란 용어 대신 ‘음향조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변화와 비결정성은 그의 작품에 중심개념으로 그는 백남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백남준의 작품 「존 케이지에게 바치는 경의」에서 보듯 케이지에 대한 백남준의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 「존 케이지에게 바치는 경의」에서 백남준은 행위음악의 전기를 열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음악과 공연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피아노는 터부(taboo)다. 이것은 파괴되어야 한다”는 1963년의 그의 언급은 이러한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 백남준은 1959년부터 행위예술을 통해 비좁은 음악의 한계를 벗어났다. 자신의 곡을 연극처럼 공연해 플럭서스(FLUXUS)그룹의 예술가들 및 조형예술 분야의 예술가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가변성과 비결정성, 인간화된 전자 테크놀로지

1963년 파르나스 화랑에서 열린 그의 첫 개인전인 <음악의 전시-전자텔레비전>은 케이지의 영향을 넘어서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서 백남준의 초기작업의 중심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최초의 개인전에서 선보였던 텔레비전은 조형예술적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보다는 음악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전시에 TV매체를 등장시킨 선례는 리처드 해밀턴과 같은 영국의 팝아티스트나 네오아방가르드 작가인 세자르의 조각 등에서도 등장하는 것이었지만, 이들의 경우는 모두 TV매체를 소재로 하거나 이에 대한 매체비판적 태도들이 깔려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백남준의 개인전에서 선보인 12대의 TV는 전자음악을 광학분야로 단순하게 적용하고 확대한 것이 아니라, 존 케이지의 경우처럼 시리얼 작곡 방식을 거부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되었다. 당시의 전위 음악가들이 시도하던 측정된 시간과 가청주파수 등으로 구성된 테이프콜라주 작업방식과는 정반대되는 태도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TV에서 발생하는 음향의 우연성과 임의성이 그의 주된 관심사였고 이러한 음악을 전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개인전에서는 이러한 그의 의도보다는 전시장 입구에 걸어놓은 소머리에 대한 저널의 관심이 집중되어 그를 다소 불만스럽게 만들지만, 실험 텔레비전과 전시회에 대한 그의 발문(1963)을 보면 비결정성과 가변성이 주된 관심영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64년 실험적 예술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백남준은 켈리스트인 샬롯 무어만(Moorman Sharlotte)과 자주 공동작업을 선보였는데, 조형예술과 문학에서는 섹스가 주요한 예술적 테마가 되



<살아있는 조각을 위한 TV브라>

는데 음악에서는 금지되고 있는 점을 질문하기 위하여 1967년 무어만이 다양한 나체 포즈로 첼로연주를 했던 「오페라섹스트로니크」를 발표하였다. 이 공연 결과 백남준과 무어만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이들의 작업은 사회적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조치와 판결은 예술작품에서 누드를 더 이상 체벌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일각에서 백남준이 예술을 빙자하여 샬롯 무어만을 관음증적 섹스의 대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그의 발상은 “유럽회화 전통에서 바이올린과 기타 그리고 첼로가 이상화된 숭배 대상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상징”으로 작용하는 인식을 전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비디오 아트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켰던 백남준은 1969년 <살아있는 조각을 위한 TV브라> 공연을 통해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두 대의 7.5cm브라운관과 플렉시 유리케이스로 제작된 소형 TV가 연주자 무어만의 브라로 착용되고 작은 화면에는 실제 방영중인 TV 프로그램, 비디오 테이프, 폐쇄회로 화면을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첼로의 음은 증폭되고 시각적 신호로 바뀌어 텔레비전 영상을 방해한다. 이는 “전자와 테크놀로지를 인간화하기 위한 선포한 사례”로 고안된 것이었다.

참여 TV



TV 시계

비디오 아트, 비규정성에 기초한 무한한 자유의 결정체

●「마그네트 TV」 「참여TV」 「TV를 위한 선(禪)」 「달은 가장 오래된 텔레비전」 「TV부처」

근본적으로 그의 TV가 음악의 필요에 의해 비롯된 것이지만, 본격적인 그의 TV 작업은 1961 「마그네트 TV」와 「참여TV」에서 비롯된다. 「참여TV」는 TV에 연결된 확성기로 청각적 자극을 가하면 화면에 기이한 선형상물로 확대되는 것이었다. 「마그네트 TV」는 강한 강철자석을 TV 위에 놓아 자석의 힘은 전자광선이 직사각형의 화면을 못 채우도록 방해하는 것이며, 주사선 영역은 위로 당겨져 자석의 중력 내에서 베일과 같은 모양의 조직으로 배열된다. 초기의 단순한 모니터상의 영상변화의 작업으로부터 백남준은 멀티모니터 비디오 작업으로 전환되게 되는데 「TV시계」(1963~81), 「달은 가장 오래된 텔레비전」(1965~76)이나 「TV를 위한 선(禪)」(1963)과 같은 미니멀 비디오 작업이 그 대표적 작업일 것이다. 이 시기의 작업들은 「TV시계」는 멀티모니터 설치로서 12대의 흑백 텔레비전과 12대의 컬러 텔레비전을 사용하였는데 이 텔레비전들은 각기 밤과 낮의 시간을 대표한다. 화면에 나타나는 상이한 각도의 선들은 시계바늘을 연상시키지만 기실은 지구의 자전도수에 따라 생성되는 24시간 주기의 시간 구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달은 가장 오래된 텔레비전」은 진공관의 자석변화를 통해 다양한 달의 변화형태와 유사한 화면을 생성시켜

마치 비디오로 촬영한 달을 보는 것과 같은 형상을 연출한 것으로 달이 유일한 빛의 원천이었던 태초의 자연과 차가운 TV의 빛으로 상징되는 문명을 시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이후 백남준의 비디오는 다른 비디오 아티스트의 작업에서 보이는 것처럼 폐쇄회로를 통한 작업으로 전환된다. 이는 영블러드 진(Youngblood Gene)이 표현하듯 “예술가는 소통되는 내용보다는 소통되는 방식과 이러한 과정의 인식에 관심”이 있는 것이며, 이는 비디오 매커니즘 자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디오 아트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태도가 깔려있기도 하다. 로잘린



백남준은 기존의 관습과 제도적 의미에서의 예술을 총체적으로 해체한 세기의 예술가였다.

그는 새로운 미디어를 예술의 영역에 도입함으로써 각 예술장르의 경계는 물론, 세계와 문화의 벽을 허물며 이를 위한 쉽 없는 노매드적 삶을 살다갔다. 대상화된 뇌를 넘어서 아직 주어지지 않은 다양하고 새로운 길들이나 시냅스들, 즉 새로운 연결 접속들을 창조해 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는 부정의 예술가가 아니라 긍정의 예술가였으며, 슬픔과 피로한 아이러니의 예술가가 아니라 유머와 삶의 예술가였다.

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는 이를 나르시시즘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제작된 작품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TV부처」(1974)이다. 폐쇄회로 설치 작업인 「TV부처」는 자기 자신 내지는 자신의 영상과 마주 앉아있다. 그의 명상의 목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공(空)이었지만, 모니터 상의 카메라 영상은 그를 그가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육체로 반사했다. 동양적 지혜의 상징인 부처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현대적인 나르시시가 된다. 그의 대표작인 「TV부처」는 이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발표된다.

● 「TV십자가」 「참여TV」 「TV정원」 「물고기 하늘을 날다」

표현이 정제되어 있거나 자기성찰적 의미의 비디오 작업을 거친 이후 작업들은 멀티모니터 설치를 통해 초대형 매트릭스를 향해 나아간다. 멀티모니터 설치하는 여러 대의 모니터를 동원하여 대형조형물을 만드는 작업으로서 초기의 「TV십자가」(1966~76)와 같이 십자가 구조물에 여러 대의 모니터를 배치

하는 단순한 형식으로부터 「다다익선」(1988)과 같은 초대형 매트릭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TV십자가」와 「참여TV」가 몇 대의 텔레비전을 조각적 형태를 구상한 것이었다면, 「TV정원」(1974)은 어두운 전시공간 내에 열대식물로 인공정원을 조성하고 정원 내에 28개의 TV모니터를 설치함으로써 열대식물들 사이에서 빛나는 모니터는 정원에 핀 꽃과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로 인해 텔레비전은 유기적 형태가 되었고 합성된 영상들은 더욱 더 완벽하게 현실에 접목되었다, 화면상에서 계속되는 형태와 색채의 변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과 일치하게 된다. 이 시기에 제작된 「물고기 하늘을 날다」(1975)와 같이 천정에 설치된 40대의 모니터 상에 유영하는 물고기들의 동영상을 바닥에 누워서 감상토록 한 작품은 멀티모니터 설

치를 통해 자신의 비디오 아트를 1960년대의 키네틱 아트와 구분 지으려 하였다. 「TV정원」으로 시작되는 1970년대 멀티모니터 설치하는 자연과 기술을 대비시킨다.



굿모닝 미스터 오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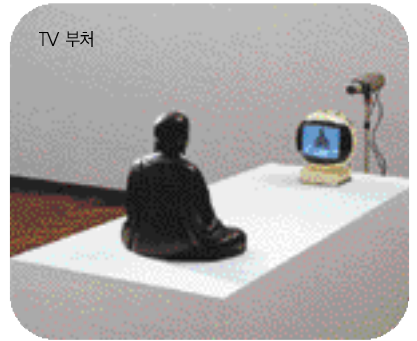
● 「굿모닝 미스터 오웰」

그의 작업에 있어 획기적 전환은 「굿모닝 미스터 오웰」로부터 비롯된다. 1984년 1월1일 풍파두센터와 뉴욕의 WNET 텔레비전 스튜디오로부터 전세계로 생중계된 이 작품은 미스터 오웰의 소설 『1984년』을 소재로 각종 정보를 통제하는 ‘빅 브라더’로서의 TV의 기능을 환기시키는 작품이었다. 다양한 예술가들과 현대문명을 상징하는 영상이 빠르게 교차하는 전자공학적 콜라주와 복잡한 시간구조, 그리

TV 정원



TV 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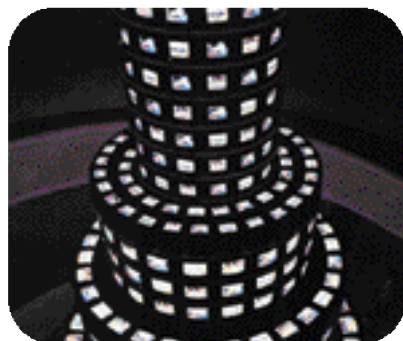
고 분할스크린 기법 등을 대비시키는
이 작품을 통해 그는 “비디오 예술을
고급 예술로, 인류가 만든 최고의 예



술로 발전시키기”를 원했다. 이 작업 역시 즉흥과 우연을 작업의 원칙으로 삼았다. 1990년대의 작업들은 종전의 작업들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를 조합한 인체와 사물형태의 조각 작업들을 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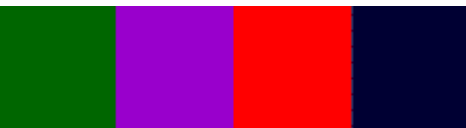
특히 이 시기에는 한국적 소재와 이미지가 그의 작품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1996년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부분 회복되어 작업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사망하기 전까지 그는 과거 1960년대부터 관심을 가지고 1980년대에 제작한 바 있던 레이저작업에 새롭게 몰두하게 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규격과 모니터에 한정되어 있는 텔레비전 화면을 해체하고, 더 큰 공간적인 효과를 이루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레이저는 영상의 비물질화를 더 촉진시킨 것이 된다. 2000년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의 회고전에서 그는 미술관 천정으로부터 바닥으로 굴절 투영되는 레이저 빔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폭포구조물인 「야콥의 사다리」를 발표하였다. 대형 레이저 아트는 작품이 투사되는 기존 공간의 문맥을 변화시키는 해체와 확장의 예술을 구현한 것이었다. 백남준은 초기의 전자매체가 결합된 음악적 차원의 실험적 행위예술로부터 최근의 레이저 아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기존의 예술형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갔다. 서양에서 활동하였지만 그의 작품에는 동양과 서양, 이미지와 오브제, 디지털과 아날로그, 과학과 예술, 문명과 자연 등 이분법적 경계를 넘어 다원적이며 총체적인 세계를 지속적으로 모색하였다. 비규정성에 기초한 그는 창조적 사유가 도달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꿈꾸며 실천하였다.

다다익선



노매드적 삶을 살다간 세기의 예술가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백남준은 기존의 관습과 제도적 의미에서의 예술을 총체적으로 해체한 세기의 예술가였다. 그는 새로운 미디어를 예술의 영역에 도입함으로써 각 예술장르의 경계는 물론, 세계와 문화의 벽을 허물며 이를 위한 쉽 없는 노매드적 삶을 살다갔다. 하이테크 예술이 빠지기 쉬운 ‘기술로 인한 즉물화’에 대한 대항, 예술과 형이상학, 과학적 합리주의에 대



항하는 예술의 가치 모색과 같이 어느 한 쪽의 입장에 머물기보다는 양자의 입장을 종합하려 노력하였다. 동양과 서양, 자연과 문명 등 이분법적 서구문화의 규범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기존의 영토를 지속적으로 탈주하여 ‘탈영토화’를 꾀하였다. 그의 세계는 들뢰즈가 말하는 이른바 ‘존재(생성)의 종합’으로 지칭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상태의 환원적 유물론을 표현적 유물론으로 대체하고자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대상화된 뇌를 넘어서 아직 주어지지 않은 다양하고 새로운 길들이나 신경망들, 즉 새로운 ‘연결 접속’들을 창조해 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는 부정의 예술가가 아니라 긍정의 예술가였으며, 슬픔과 피로한 아이러니의 예술가가 아니라 유머와 삶의 예술가였다. ●●●●●